

# ‘좌’ 흥민·‘우’ 청용



# 수비는 오리무중

슈틸리케 號 아시안컵 라인업

조영철·이근호, 최전방 놓고 경합... ‘깜짝 골’ 이정협 조커 눈도장  
기성용 짝, 박주호·한국영 놓고 저울질... 수비라인은 아직 실험중



손흥민



기성용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 담금질을 치른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구사할 전술과 선수의 기용 방향을 내비쳤다.

공격진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빈번한 자리이동을 강조하는 제로톱이 기본 전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꺼낸 전술 대형은 공격수 4명을 포진하는 4-2-3-1이었다. 경합이 풍부하고 활동량이 많은 이근호(엘 자이시)가 센터포워드로 나섰다. 좌우 날개 공격수 손흥민(레버쿠젠), 조영철(카타르SC), 처진 스트라이커 구자철(마인츠)이 2선 공격진을 형성했다.

이들의 공격진 조합은 전반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공격수들의 자리 이동은 빈번했으나 설익은 듯한 호흡 때문에 볼의 투입이 둔탁해 파괴력이 없었다. 이런 문제는 한국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는 이정협(볼턴)이 피로를 털고 출격하기 시작하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손흥민과 이정협의 찰떡궁합은 최전방 공격수, 처진 스트라이커의 위력까지 높이는 효과를 내곤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들어 이근호를 빼고 조영철을 최전방으로 올린 뒤 오른쪽 날개로 한교원(전북 현대)을 투입했다. 특유의 공격력이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자랑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구자철도 남태희(레퀴아)와 교체됐다.

센터포워드 조영철, 처진 스트라이커 남태희, 좌우 윙어 손흥민, 한교원 조합은 전반보다 나은 장면을 보여줬다. 제로톱 전술의 가짜 공격수로 활동하던 조영철은 막판에 타깃형 스트라이커인 이정협으로 교체됐고 이정협은 골을 터뜨렸다.

결국 슈틸리케호의 공격진에서는 손흥민, 이정용이 좌우 윙어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조영철, 이근호가 최전방을 놓고 경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협은 한방을 지닌 조커로 눈도장을 찍었다.

처진 스트라이커로는 사우디전을 계기로 남태희가 구자철보다 대체로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오지

만 일단 지켜볼 일이다.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는 기성용(스완지시티)에게 이미 예약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성용의 짝으로는 박주호(마인츠), 한국영(카타르SC), 이명주(알아인) 등이 거론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전날 박주호, 한국영을 중원의 듀오로 내보냈으나 공수 양면에서 둘은 잇박자를 냈고 효과적 볼 배급에 실패했다. 박주호는 전반에 수비형 미드필더, 후반에 왼쪽 풀백으로 풀타임을 소화해 다재로운 역량을 과시했다. 후반에 이명주가 박주호의 자리에 들어와 앞선을 휘젓자 한국영은 특유의 수비력을 회복했다.

기성용의 짝은 왼쪽 풀백의 상황에 따라 박주호나 한국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주는 현재로서는 공수 양면에서 막판에 힘을 보태는 조커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비라인은 오리무중이다.

왼쪽 풀백에 김진수(호펜하임), 박주호, 오른쪽 풀백에 차두리(FC서울),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경쟁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차두리가 주전을 굳힌 듯했으나 김창수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차두리의 잔 부상을 틈타 풀타임으로 맹활약했다. 센터백도 장현수(광저우 푸리), 김주영(FC서울)이 콕 태워(알힐랄), 김영권(광저우 헝다)을 제치고 사우디전에 발탁됐으나 불안한 장면이 다수 있었다.

슈틸리케호 출범 후 5차례 평가전에서 수비라인이 같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또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골키퍼 경쟁에서는 김진현, 김승규가 정성룡이 부상 때문에 며칠 훈련을 거른 틈을 타 한발 앞선 상황이다. 둘은 전·후반을 나누어 뛰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진현은 슈틸리케호에서 수문장 가운데 가장 많은 세 차례 선발로 나서 김승규(1선발·1교체), 정성룡(1선발)보다 수지로는 우위에 섰다. 슈틸리케 감독은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서 공격 전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비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수비수나 미드필더들에게 전하는 패스의 질도 주전 수문장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 /연합뉴스

## “심판판정 공정성 강화”

대한축구협회 시무식... 정몽규 회장 “변화의 원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15년 한해를 한국 축구의 도약을 위한 ‘변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5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 한국 축구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부진으로 심하게 요동쳤다”며 “축구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성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중요시해온 한국의 축구 문화는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왜곡시켰고, 이것이 장기적이고 건전한 축구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새해에는 축구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추구하는 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각급 대표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경기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판 문제 개선방안 마련 ▲프로 축구 승강제 확대 실시 ▲유소년 축구 지속 투자 등 4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우선 올해 캐나다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자 대표팀과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평가전을 확대하고, 여자축구 예산을 늘려 저변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 이원화된 심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통합의 첫 단계로 프로연맹 심판위원장을 축구협회 심판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두 조직의 직접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심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건전한 경기운영을 방해하는 감독, 학부모, 관중의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게 축구협회의 방침이다. 더불어 프로축구 클래식과 챌린지에만 도입된 승강제를 내셔널리그와 K3리그 팀까지 확대하고, 골든에이지 등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과 초중고 주말리그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4가지 정책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한국 축구를 위해 노력해 온 팬들의 재능과 헌신이 이런 변화를 주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항식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 현장 방문



김항식 광주U대회조직위 위원장이 5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U대회 선수촌 건설 현장 방문. 관계자로부터 건설공정을 듣고 있다. (광주U대회조직위 제공)

## “광주, U대회 성공개최로 진일보할 것”

경기장·숙박시설 등 준비 상황 점검

“광주유니버시아드의 성공은 주인인 광주시민에게 달려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등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저도 성공 대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항식 광주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U대회 성공개최에 일조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호남 최대 국제 스포츠행사인 광주U대회의 성공은 광주와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가 가진 소중한 가치와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되는 세계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 “남북단일팀과 북한 응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광주U대회를 계기로 남북이 더 가까워지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직위와 신설 경기장 등 현장을 둘러보며 총체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U대회는 적은 예산으로 치르는 모범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조직위는 내일 당장 대회가 열린다는 긴장감으로 준비하고, 광주시와 시민들은 손님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정정욱기자 jwpark@

## 전담 키커, 손흥민 유력

“프리킥·코너킥 예리... 기성용, 제공력 활용”

아시안컵에 나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세트피스 키커는 누가 맡을까.

지금까지 대표팀 상황을 살펴보면 손흥민(레버쿠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파라마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코너킥과 프리킥을 전담했다.

그는 후반에 순식간에 골문 앞 혼전을 불러일으키는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사우디 수비수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장기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무회전 프리킥 직접 슈팅으로 골문을 직접 위협하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에서 최근 들어 가장 오래 세트피스 키커를 맡은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스완지시티)이다.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정상급 패스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교한 킥을 자랑하고 있다. 그의 세트피스 킥에는 목표로 하는 선수를 정확히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택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기성용은 전날 잉글랜드에서 건너와 캠프에 합류한 까닭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 결장했다. 하지만 아시안컵 경기가 펼쳐질 때도 세트피스 때 기성용이 아닌 손흥민이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슈틸리케호에서는 손흥민, 기성용, 김민우(사간도스) 등이 세트피스 키커로 나섰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기성용의 킥이 위력적이지만 190cm에 육박하는 키, 탄탄한 덩치와 힘을 갖지 못해 여겨 그가 세트피스 키커로 나서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슈틸리케 감독은 기성용이 키커로 나서면서 제공력을 써하는 것은 무척이나 아깝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 날개 공격수나 풀백으로 나서는 김민우는 치열한 주전경쟁 때문에 출전시간이 얼마나 보장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처럼 손흥민이 세트피스 키커를 전담해 멋진 장면을 많이 연출해낼지 기대된다. /연합뉴스